

광주FC '아침' 첫 진출 선전하는데...시의회 예산 10억 삭감

상임위 "절차 무시 광주FC 엄중 경고 필요" 수용 삭감안 그대로 통과
팬들 "좋은 성적에도 무관심...공청회 개최 예산 삭감 재검토" 반발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말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을 확정된 광주FC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광주FC가 올해 상반기 추정 예산 심의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지출 후 사후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축구 팬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광주시가 편성한 광주FC의 ACLE 참가 지원금 10억 6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협의 없이 비용을 사전 사용하고 보존해달라는 광주FC의 예산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해당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고, 절차를 어긴 광주FC에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상임위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FC는 54억원의 매출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도입한 'K리그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1군 무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는 광주FC가 지난해 말 ACLE 진출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추정 예산 심의 때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이제야야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축구 팬들의 반발은 커

지는 모양새다. 절차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상반기 K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ACLE 진출까지 한 광주FC에 대해 시의회가 그동안 관심이나 애정을 갖고 살펴야 했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주FC 팬 김모씨는 "광주시가 시의회에 편성을 요구한 ACLE 참가 지원금 10억여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럴 때 광주시와 광주FC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배랑 끝 전술밖에 없다. ACLE 출전 여부를 포함해 구단 운영 자체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를 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2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7조8617억원을 의결했다. 본예산 7조7770억원보다 1.1%(847억원) 늘었다.

세입 예산은 64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30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 세출 예산은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19억8500만원 등 97억6500만원(17건)을 증액하고 중증 뇌병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등 79억4700만원(10건)을 감액했다.

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추정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평의 밤, 빛의 향연'

'2024 함평 겨울밤 빛축제'가 26일 개막했다. 12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과 대형 크리마스 트리, 국화 조형물 등이 엑스포공원을 수놓을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국내 최대 해상 풍력단지 조성 속도...1단계 3.2GW로 하향

집적화단지 추진 민관협 회의 개최

전남도가 국내 최대 해상 풍력단지 1단계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을 기존 3.7GW(12개 단지)에서 3.2GW(10개 단지)로 변경했다. 정부와 협의해 풍황계 측기가 없는 2개 단지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5일 제4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민관협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전남도는 1단계 3.2GW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3.2GW는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인 덴마크의 보급 실적(3GW)을

웃돌며,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124MW)의 25배에 이르는 사업이다. 협의회에서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송전선로 관련 예정 경과지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변경안과 전력계통협의체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했다.

추가 위촉된 위원에는 송전선로 예정 경과 지역 주민 대표와 부단체장이 포함돼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또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도록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남도는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 계획을 연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창환 부지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소통하고 산업부와 공조해 집적화단지를 신속히 지정받아 해상풍력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첫 민간 주도 96M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 밝히며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 축으로서 해상풍력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더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AI 사관학교' 전문인력 305명 배출

제5기 수료식...조기취업 52명

광주 '인공지능(AI) 사관학교'가 지난 10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AI 전문인력 305명을 배출했다.

2020년 첫 모집 이후 5년간 탄탄한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통해 올해 5기까지 총 122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한 인공지능(AI) 사관학교는 1~4기 졸업생 68%가 취·창업에 성공했고, 이번 5기는 52명이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 학습과 기업 실무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엔비디아(NVIDIA)의 딥러닝 프로그램(DLI)을 제공하고, 한국IBM, ㈜데이터솔루션 등의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성과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으며, 강기정 시장과 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디지털본부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AI 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교육생의 수료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선 ㈜엘리그룹, 대신정보통신(주),

쌍용정보통신(주) 등 25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도 진행돼 수료생들에게 구인 정보, 현장 면접,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료식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AI 이론과 실무역량을 모두 갖출 수 있었고, 현재는 동료 교육생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AI) 기업의 CEO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날 우수교육생으로 선정된 4명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CT 전시회인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기회를 얻어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한다.

이날 수료한 5기 사관학교 교육생들은 산업현장과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해 총 1300여 시간에 걸친 인공지능(AI) 교육 및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 교육과정과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완수했으며, 지역 내외 30여개 AI 기업과 협력해 60건의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시는 내년에 진행되는 제6기 인공지능(AI) 사관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추가 확대하고, 수준별·단계별 교육 운영, 수료생 후속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 연다

오늘부터 시청 시민홀

광주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상담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연결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다종은커피협동조합, ㈜저음한과, ㈜버블링거스 등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50개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참여 기업들은 포도존, 플레이존, 전시존, 체험존 등에서 제품 전시와 체험을 통해 우수성을 알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양한 사회적경제제품을 직접 시음·시식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